

수문 개방 후 더 심해진 영산강 녹조

승촌보·죽산보 물 270만t 방류에도 남조류 세포수 급증 전문가 “일시 방류는 상황만 악화...보 허무는게 해결책”

녹조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영산강 보(洲) 건설 이후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했지만 오히려 녹조 현상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녹조 현상을 부르는 남조류 번식을 막으려고 수백만t의 물을 일시 방류했지만 남조류 수치가 치솟아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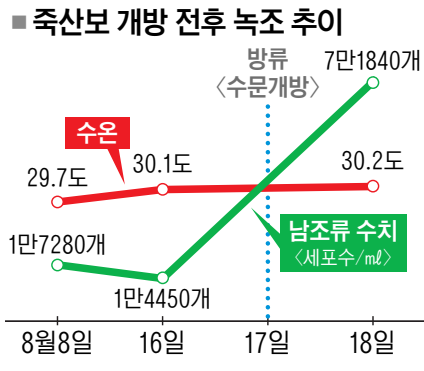
녹조현상이 심화할 경우 어류가 폐사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악취, 미관 훼손도 유발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지만, 환경당국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일시적 방류만 고집하고 있어 되레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7일에 이어 지난 24일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안에 가둬뒀던

450만t의 물을 방류했다.

남구에 위치한 승촌보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1시간40분동안 초당 최대 200t의 물을 쏟아내 총 50만t을 방류했고, 나주에 자리한 죽산보는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여 동안 초당 최대 400t씩 총 400만t을 방류했다. 지난 17일 영산강 수중보 건설 이후 처음 시행된 펄스형 방류와 비교하면 방류량은 180만t 늘었고, 수문 개방 순서도 승촌보를 연 후 죽산보를 열었던 것과 달리 전후가 바뀌었다.

당국이 잇따라 보를 열어젖히는 이유는 영산강을 온통 뒤덮은 남조류를 물과 함께 떠내려보내 녹조 현상을 완화하는 등 수질을 개선해보려는 목적에서다. 남조류가 장광해 그대로 썩어갈 경우 물속 용존 산소를 잡아먹어 어류 폐사 등 수생태계 파괴를 불러오고 악취와 미관 훼손도 피할 수 없어 ‘영산강을 죽인다’는 비난을 피



해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대대적인 수문 개방과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녹조 제거 활동에도 영산강 녹조현상과 수질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죽산보 남조류 세포수는 1㎖당 1만4450개로 측정됐는데 수문 개방 하루 뒤인 18일 1㎖당 남조류 세포수가 7만1840개로 최근 2년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녹조현상이 심각해졌다. 죽산보와 달리 승촌보 구간은 보 방류 이후 수질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은 “승촌보, 죽산보 수문을 열고 방류하지 않았다면 되레 녹조 현상이 심각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보 방류가 녹조 현상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면서 “녹조 현상은 일사량, 강우량, 수온, 물의 흐름, 영양염류의 양, 용존 산소량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생기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생태계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당장 여론의 눈총을 피해보려고 일시적인 방류를 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결과도 그렇지 않나. 보를 허물고 강이 강답게 흐르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인 방류는 이미 죽어버린 남조류 일부를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방류 이후 새 물이 유입되면서 용존산소와 영양염류를 공급해 녹조를 장광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순천 10대 3명 적발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25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주범인 A(17)군을 구속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7)·C(16)군 등 2명은 불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23일 여중생 D(14)양을 순천시 덕월동의 한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게 한 뒤 원룸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당일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는 D양을 성폭행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옥상으로 불러내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수능원서 접수 시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 25일, 수험생들이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쓰비시 피해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노조 오늘 설립

60여명 노동청에 신고서

이르면 26일 광주시 서구청에 기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지부(제1노조)와는 별도의 노동조합(제2노조)이 설립된다.

제2노조가 그간 구청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제1노조에 반발해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550여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제1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구청 내 갈등을 격화시킬 수도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을 위주로 한 공무원 60여명을 조합원으로 한 제2노조 성격의 ‘광주시서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총회를 갖고 노조 설립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규약에 따른 임원 등 집행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6일 신고증을 교부받게 될 제2노조는 사실

상 법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공무원 노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1노조인 전국노조 광주서구지부가 실질적인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췄지만 관련법에 따른 절차진행이 거부되면서 여전히 법외 노조로서다.

제2노조인 광주서구노조 측은 노동청에서 신고증을 받는 대로 유일한 법 내 노조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이는 예고된 수순이다. 제2노조의 주축이 된 6급 직원들은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일변도로 달리는 노조(제1노조) 집행부가 사퇴하지 않으면 제2노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시원한 소나기

대구발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다.

지역	소나기	기온
광주	소나기	24/32
목포	소나기	24/31
여수	구름많음	25/31
나주	소나기	23/32
완도	구름많음	23/31
구례	소나기	22/31
강진	소나기	22/32
해남	소나기	22/32
장성	소나기	23/31

지역	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남해 앞바다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1.5~2.5

목포	밀물	썰물
	08:01	00:50
	20:59	13:16
여수	02:39	09:06
	16:00	22:14

날짜	날씨
27(토)	☀
28(일)	☀
29(월)	☀
30(화)	☀
31(수)	☀
9/1(목)	☀
2(금)	☀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로 전관예우 방지

광주지법 다음달 시행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 과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형사합의사건을 맡으면 재판장은 해당 재판을 적극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광태)은 재판부와 연구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형사합의사건의 처리를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재배당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지법 형사부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

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판장은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합의부가 2개뿐인 광주지법에서는 2개 재판부와 모두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형사합의부는 3개 재판부다. 기존 형사합의부 2개에 형사합소부 3개를 추가해 사건을 재배당함으로써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 벌초·성묘길 임도 이용하세요

전남도는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산림서비스 향상과 벌초 및 성묘객 편의를 위해 도내 임도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도 개방은 벌초 및 성묘객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도 대상은 각 시·군 공유임도와 산림청 국립임도로, 기간은 각 시·군의 실

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산림보호 구역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비포장 구간이 많은 임도는 산림보호 및 산림경관 등 산림사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경사가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따라 성묘객들은 임도를 이용할 땐 각별한 주의의를 해야 한다.

/이종형기자 golee@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